

# 新聞放送學科의 특성과 교육과정

柳 一 相

(建國大 新聞放送學科)

## 1. 教育目標

신문방송학이 대학의 독립적인 분과 학문으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신문방송학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對話現象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일찍이 관심을 끌었지만, 매스미디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홍수같이 범람하는 정보의 파도 속에서 수용자의 작성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신문방송학의 인기를 고양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언론매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의 획기적 개선과 대중 문화 세계의 스타 시스템에 대한 들끓는 동경 등이 막연하나마 新聞放送學에 대한 일반의 매력을 증진시켜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학문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신문방송학에서도 사회적 여건의 영향을 받아 理論과 實踐의 완전한 統一性은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신문방송학의 正體性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하여 왔고, 사회 일각에서는 專攻과 實務의 불일치에 대한 불만이 되풀이되어 왔다. 그래서 신문방송학의 學問的 位相에 대한 비판마저 드물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언론 現業과 언론 學界의 이중 구조가 파행성을 드러낼 정도에 이르렀다.

돌이켜 보건대, 신문학은 신문 현상에 대한 인

간들의 실제 경험과 그 반사적 사고의 상호 교류 속에서 발생하였지만, 신문학 연구 대상의 확장과 더불어 방송·출판 및 뉴미디어에 의한 각종 전달·전파 현상의 역사, 기사 자료 수집 방법, 제작 과정, 독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탐구를 통해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合理的 法則性을 발견하려는 지성적 노력의 총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신문방송학을 도구적·기능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학문의 정체성이 의심받고 있고 분과 학문으로서의 독자성을 폄시당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신문방송학은 新生學問으로 치부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접근 방법은 기성 학문의 의궤수에 속달되어 있는 일부 학자들에게 설익은 것처럼 보이고, 틀에 박힌 가치 판단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학문 분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더구나 미국 신문방송학의 4대 鼻祖로 일컬어지는 라스웰(H. Lasswell), 라자스펠드(P. Lazarsfeld), 레윈(K. Lewin), 호브랜드(C. Hovland) 등은 정치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실험심리학을 연구했던 학자들이다. 이들은 양차 세계 대전을 전후하여 국가의 정책적 연구에 동원되어 신문방송학의 여러 주제들을 연구하다가 '신문방송학은 학문의 십자로'라는 명언을 남기고 각자의 연구

분야로 되돌아 갔던 바 오히려 그들의 명언과 회귀가 신문방송학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의 진원이 되었을런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신문방송학은 오늘날 도구 학문이나 정책 학문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인간 상호 간의 이해와 제반 사회 계층 간의 이해 촉진은 물론 인간의 고유한 정신 활동을 억압과 조종으로부터 복원하는 解放의 학문으로서 학문 중의 학문, ‘메타학문’으로의 요청을 받아 그 연구 영역을 기존의 철학 연구에까지 확대시켰다. 말하자면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본질에 대한 연구에는 기존의 역사학, 철학, 법학은 물론 자연과학의 인식 방법까지도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결국 학문의 畛域과 개별 분과 학문의 特殊性이 변증법적 관점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신문방송학의 교육 목표는 실무 교육이나 언론인의 직무 연수 등 기능적·경험적 차원에서 비상하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삶에 대한 따뜻한 정서를 함께 누리는 능력 개발의 차원으로 발전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2. 沿 革

우리나라에서 신문방송학이 전문적인 독립 교과목으로 설강된 것은 1947년 ‘조선신문학원’(이후 ‘서울신문학원’으로 개칭됨 : 원장 광복산)에서부터라고 한다. 그러나 조선신문학원의 수업 연한이 제1기생의 경우 6개월이고 제2기생부터 1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계적인 신문방송학의 도입이라기보다는 言論人 양성을 위한 실무 훈련의 실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후 대학 수준의 강좌로 1950년 제1학기에 서울대 문리과대학에 ‘신문개론’을 개설, 광복산 교수가 이를 담당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학 강좌라고 한다. 이 강좌는 6·25 전쟁으로 잠시 중단되었으나, 이해창·천관우·박권상·김규환·이상희 교수가 뒤를 이어 강의

를 진행시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한편, 연세대 문과대학에도 1953년 1학기부터 광복산 교수에 의해 신문학 강좌가 개설되었고 그후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에도 이 강좌가 개설되었으나, 학과 차원에서 신문방송학이 독립적인 분과 학문으로 자리잡은 것은 1954년 홍익대 신문학과 개설 이후부터라고 하겠다. 당시 신문학과와 창설과 교과목 편성을 담당했던 것은 광복산 교수였는데, 당시의 교과과정을 살펴 보면 신문학 이론 2과목, 정치학·사회학·사회심리학·외교사 등의 교과목과 함께 신문 취재 편집 관련 교과목 2과목, 신문학 연습 2과목, 한국신문사, 신문윤리법제·신문경영론·여론선전문 등의 이론 과목과 신문영어 과목 등이 눈에 띈다. 선택 과목은 필수 43과목에 비해 19과목으로 개설 총 강좌 대비 30%에 불과하지만 문학개론, 심리학, 헌법, 경제정책, 국제공법, 문장론, 구미신문사, 행정학, 정당론, 국가론, 한국정치사 등 인접 분야의 과목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 신문학이 조망하려는 세계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홍익대 신문학과는 5·16 이후 대학설치기준령 미달로 폐과되고 당시 재학생은 1957년 4월에 우리나라 두번째로 창설된 중앙대 신문학과에 편입되는 수난을 겪는다. 1960년에는 이화여대에 신문학과가 창설되었고 1963년에 한양대, 1965년에 고려대의 경희대, 1967년에 성균관대, 1968년 서강대에 신문학과 또는 신문방송학과가 창설되었다. 경희대는 홍보학과라는 이름으로 창과되었으나 1969년에는 신문방송학과로 개칭하였고 서강대는 당초 보도예술학과로 창과되었다. 전국 신문방송학과와 창설 및 재학생 현황을 소개하면 뒤의 <표 1>과 같다.

1990년 3월 현재 신문방송학과 학부생 총 수는 4,743명이며, 석사과정 215명과 박사과정 64명 등 대학원생을 합치면 모두 5,022명에 이른다. 개방대학 체제인 광주대의 500명을 제외하고는 정규 대학 중에서는 연세대 신문방송학과가 학부 재학생 30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려대(295명), 이화여대(278명) 순이다. 석

1) 팽원순, 「한국의 기자 채용과 연수 제도의 현황」, 한국언론연구원(편), 1990, pp. 41~42.

〈표 1〉 전국 신문방송학과 재학생 현황  
(1990년 3월 현재)

대 학	학 부	석 과	사 정	박 사과 정	학 입 학 정 원	부 설 립 연 도
경 회 대	172	20	7	40	1965	
고 려 대	295	22	8	60	1965	
광 운 대	40	—	—	40	1990	
서 강 대	175	36	6	40	1968	
서 울 대	147	15	7	28	1975	
성 균 관 대	174	21	14	40	1967	
인 세 대	309	23	6	60	1972	
이 화 여 대	278	19	—	60	1960	
중 앙 대	256	15	9	30	1958	
한 국 외 대	176	12	—	50	1978	
한 양 대 (서 울 · 안 산)	210	16	7	50	1963	
강 원 대	40	—	—	20	1989	
건 국 대	128	—	—	50	1984	
경 남 대	155	—	—	40	1984	
경 북 대	143	—	—	40	1984	
계 명 대	260	9	—	60	1981	
광 주 대	500	—	—	30(주40) (야40)	1985	
동 아 대	120	—	—	40	1981	
경 성 대	80	—	—	40	1989	
부 산 대	63	—	—	35	1989	
수 원 대	170	—	—	40	1984	
원 광 대	175	—	—	40	1981	
전 남 대	150	—	—	30	1981	
전 북 대	79	—	—	30	1988	
전 주 우 석 대	181	—	—	40	1981	
청 주 대	187	7	—	40	1978	
충 남 대	80	—	—	40	1989	
계	4,743	215	64			

\* 자료 : 맹원순, 「한국의 기자 채용과 연수 제도 의 현황」, 한국언론연구원(편), 1990, p.46에서 일부 수정 전체(원 자료는 한국언론연구원(편), 「한국신문 방송연감」, 1990, pp.373~381을 참고하여 작성).

사과정은 서강대가 36명으로 가장 많고 박사과정은 성균관대가 14명으로 가장 많다.

대학원 수준의 신문방송학 교육은 1963년 서울대에 설치된 신문연구소가 비록 1년 연한의

단기 교육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정규 석사과정은 1964년 중앙대를 필두로 하여 특수 전문대학원인 서울대 신문대학원이 1968년에 설치되면서 완성화되었다. 서울대 신문대학원은 주·야간으로 나누어 주간에는 일반 학생, 야간에는 주로 언론인을 모집하여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꾀하는 운영을 시도하였으나, 1975년 서울대 종합화 계획에 따라 발적으로 해체되고<sup>2)</sup> 같은 해에 서울대에 학부과정의 신문학과를 개설하게 되었다.

전국 신문방송학과 전임 교원의 총 수는 1990년 3월 현재 123명인데 27개 대학 28개 학과의 학과별 평균 교수 수는 4.4명이다. 대학별 전임 교원 수와 학부 재학생의 비율은 뒤의 〈표 2〉와 같다.

교수 확보율이 가장 낮은 대학으로는 개방대학인 광주대(71:1) 및 신설 대학을 제외하고는 이화여대, 중앙대, 고려대, 계명대의 순으로 교수 1인이 50명 이상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서울 지역은 전체 교수가 65명인 데 비해 학생 수는 2,496명으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38명이고, 지방 대학의 경우 교수 58명에 학생 수는 2,527명으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44명에 이르러 지방 소재 대학들의 교수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 3. 教科課程 編制

신문방송학과 교육의 일반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교과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과과정은 대체로 전공 필수 과목(전공 기초 포함)과 전공 선택 과목 등으로 나뉘는데 학교의 특성에 따라 설강 과목의 내용과 과목 수는 각각 다르다. 먼저 전공 과목의 편성 실태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2) 필자는 신문대학원의 폐지가 서울대와 한국 신문학의 발전을 위한 발전적 해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론인에 대한 수준높은 재교육의 실사가 서울대 신문대학원의 해체와 더불어 사실상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다른 직업과 달리 언론인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과 도덕 의식 교양은 사회 발전의 필수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은 대학원 수준의 교육 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표 2〉 전국 신문방송학과 대학별 전임교원 수와 학부 재학생 대비표

(1990년 3월 현재)

대 학 명	교원 수	학부 학생 수	비	대학원생 포함 학생 수	비	비 고
경희대	5	172	34 : 1	199	40 : 1	
고려대	6	295	49 : 1	325	54 : 1	
광운대	2	40	20 : 1	40	20 : 1	창설 1년차
서강대	7	175	25 : 1	217	31 : 1	
서울대	6	147	25 : 1	169	28 : 1	
성균관대	7	174	25 : 1	209	30 : 1	
연세대	7	309	44 : 1	338	48 : 1	
이화여대	5	278	56 : 1	297	59 : 1	
중앙대	5	256	51 : 1	280	56 : 1	
한국외대	6	176	29 : 1	188	31 : 1	
한양대(서울·안산)	9	210	23 : 1	233	26 : 1	
강원대	3	40	13 : 1	—	—	창설 2년차
건국대	3	128	43 : 1	—	—	
경남대	5	155	39 : 1	—	—	
경북대	4	143	36 : 1	—	—	
계명대	5	260	52 : 1	269	54 : 1	
광주대	7	500	71 : 1	—	—	
동아대	3	120	40 : 1	—	—	
경성대	2	80	40 : 1	—	—	창설 2년차
부산대	1	63	63 : 1	—	—	창설 2년차
수원대	4	170	43 : 1	—	—	
원광대	4	175	44 : 1	—	—	
전남대	5	150	30 : 1	—	—	
전북대	3	79	26 : 1	—	—	창설 3년차
전주우석대	4	181	45 : 1	—	—	
청주대	4	187	47 : 1	194	49 : 1	
충남대	1	80	80 : 1	—	—	창설 2년차
계	123	4,743	39 : 1	5,022	41 : 1	

1) 敎科目 編成 狀況

① 편성 과목 개황

학부과정의 전공 필수 과목 또는 전공 기초 과목은 주로 3학년 이하에 많이 개설되고 있고, 4학년의 경우에는 전공 선택 과목의 개설 폭이 넓다. 이것은 학생들이 초급 학년에서의 신문방송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고급 학년에 올라갈수록 이론적·문화적 심화에 의한 전공 세분화의 경향을 보이는 데 따른 교과목 편성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각 대학 신문방송학과가 개설하는 전공 필수 과목 및 전공 선택 과목 편성 분포를 보면 뒤의 〈표 3〉과 같다.

전공 필수 과목의 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한국의대 신문방송학과와 한양대 신문방송학과로

19개 과목이다. 성균관대는 16개 과목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며 광주대 15개, 건국대 14개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편, 이화여대는 전공 필수 과목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고려대는 2개 과목으로 전공 필수 과목의 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강원대, 동아대, 원광대, 전주우석대 등도 전공 필수 과목이 6개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신설 학과로 자료 입수가 어려웠던 광운대를 제외하고 계산해 보면 전공 필수 과목의 평균 개설 강좌 수는 9.4개로 나타났으나, 필수 과목 수가 많은 대학에서는 1학점 또는 2학점 교과목이 상당 수 있기 때문에 전공 필수 과목의 이수 학점을 고려할 때 이화여대와 고려대를 제외하고는 큰 편차가 없을 것으로 생각

〈표 3〉 학부과정 전공 과목수 편성 분포표

과목 학년	전공필수					전공선택					총계	
	1	2	3	4	계	1	2	3	4	계		
	대학별											
경희대	2	3	4	1	9	0	5	6	5	11	20	학과 신설로 자료 입수 못함
고려대	(학년 관계없이)				2	(학년 관계없이)				31	33	
광운대	2	—	—	—	—	—	—	—	—	—	—	
서강대	2	4	3	1	10	(학년 관계없이)				50	60	
성균관대	2	3	2	0	7	1	7	9	8	25	32	
연세대	5	4	3	4	16	(학년 관계없이)				19	35	
이화여대	5	2	2	1	10	1	7	10	11	29	39	
중앙대	0	0	0	0	0	4	6	8	7	25	25	
한양대	2	6	2	0	10	0	4	10	8	22	32	
한양대(서울)	4	8	6	1	19	0	0	13	13	26	45	
강원대	1	7	8	3	19	1	3	6	10	20	39	학과 신설로 상제 한 자료 입수 못함
건국대	2	2	2	0	6	(학년 관계없이)				40	46	
경남대	3	5	6	0	14	0	4	4	7	15	29	
경북대	2	4	1	0	7	0	6	9	7	22	29	
계명대	2	3	2	1	8	(학년 관계없이)				25	33	
광주대	2	3	2	2	9	( " )				19	28	
동아대	3	5	4	3	15	0	5	10	9	24	39	
경성대	2	3	1	0	6	(학년 관계없이)				16	22	
부산대	(미상)				8	(미상)				13	21	
수원대	2	5	4	0	11	0	8	9	8	25	36	
원광대	2	3	4	1	10	0	7	9	7	23	33	학과 신설로 자료 입수 못함
전남대	2	2	2	0	6	0	4	6	8	18	24	
전북대	2	5	4	0	11	(학년 관계없이)				19	30	
전주대	1	4	3	0	8	( " )				29	37	
청주대	2	2	2	0	6	2	6	10	10	28	34	
충남대	3	3	3	0	9	0	9	7	9	25	34	
	(미상)				8	(미상)				31	39	

\* 자료의 1차 출처는 각 대학 요람이었으나, 서울대, 전북대, 강원대, 경성대 및 광운대의 일부 자료는 한국언론연구원(편), 「한국신문방송연감」, 1990, pp.373~381에서 해당 사항을 참조하였음.

된다.

한편, 전공 선택 과목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전남대 등에서 학년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이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다른 대학들에서도 학년 구분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운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 선택 과목의 개설 강좌 수가 많은 대학으로는 서강대 50개, 고려대 31개, 연세대 29개, 강원대가 세미나를 포함하여 40개, 충남대 31개로 비교적 많은 편이나, 대체로 20개 안팎의 전공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평균치인 24개

에 비해 큰 편차를 보이는 학교로는 경희대(11 과목), 건국대(15 과목), 동아대(16 과목), 경성대(13 과목) 등을 꼽을 수 있다. 전공 필수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을 합친 신문방송학과 개설 과목 수는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광운대를 제외하고 평균 34 과목이다. 총 개설 과목 수의 평균치에 비추어 서강대(60개), 한국외대(45개), 강원대(46개)는 개설 과목 수가 월등하게 많고 경희대(20개), 건국대(29개), 경남대(29개), 계명대(28개), 동아대(22개), 경성대(21개), 원광대(24개), 이화여대(25개)는 비교적 개설 과목 수가 적다. 그러나 개설 과목 수가 많은

학교 가운데 한국외대는 2학점 과목이 13개나 되고 강원대의 경우는 전공 세미나가 I에서 VIII까지 있어 개설 과목 수가 수강 학생들의 다양한 학문적 요구를 수렴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② 전공 교과목의 유형적 특성

신문방송학의 연구 영역을 성격별로 나누면 커뮤니케이션 이론, 저널리즘론, 언론사, 윤리법제론, 제작 실무 및 응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는 커뮤니케이션 개론, 매스컴 개론, 매스컴 사회학, 매스컴 심리학, 매스컴 효과론, 푸블리시시티 이론, 비판커뮤니케이션, 정치커뮤니케이션, 국제커뮤니케이션, 조직커뮤니케이션, 대중문화론, 매스컴 조사방법론과 연구방법론, 언론철학, 언론사상, 설득커뮤니케이션 이론 등이 포함된다. 저널리즘론에는 신문론, 취재보도론, 시사영어, 보도사진, 신문경영, 출판잡지론, 방송론, 방송보도론 등을 꼽을 수 있다. 언론사 관련 교과목으로는 언론학사, 언론사상사, 세계언론사, 매체발달사, 한국언론사, 세계선전사, 각국언론사를 들 수 있다. 윤리법제론에는 언론윤리론, 언론법제론, 언론의 자유와 책임, 비교언론제도, 방송제도론, 저작권법 등 각종 매체 관련 법규 등이 포함된다. 제작 실무 및 응용과 관련된 교과목으로는 신문편집·제작, 보도사진실습, 기사작성, 언론문장론, 아나운싱론, 방송편집·제작, 잡지제작, 출판연습, 연극영화제작 및 설득실무 교과목으로서 선전선동, 광고제작, 사보제작, 광고론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차베근 교수<sup>3)</sup>는 신문방송학의 연구 체계를 매스커뮤니케이션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고, 총론에 ㄱ. 개론·이론·방법론, ㄴ. 매스커뮤니케이션사, ㄷ. 매스커뮤니케이션법제론, ㄹ. 국제커뮤니케이션론을 포함시키고, 각론은 ㄱ. 신문커뮤니케이션론, ㄴ. 방송커뮤니케이션론, ㄷ. 광고·PR커뮤니케이션, ㄹ. 기타(잡지·출판·영화 등)로 나누었다. 또한 후교수가 우리나라 신문방송학과의 개설 교과목을 위의 연구 체계에 따라 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총론 과목은 54.6%

로 ㄱ. 개론 등 기본 공동 과목 35.4%, ㄴ. 매스컴사 관련 과목 8.2%, ㄷ. 언론법제 관련 과목 4.1%, ㄹ. 국제커뮤니케이션 관련 과목 6.9%이고, 각론 과목은 모두 46.6%로 ㄱ. 신문커뮤니케이션 20%, ㄴ. 방송커뮤니케이션 11.2%, ㄷ. 광고·PR커뮤니케이션 8.7%, ㄹ. 기타 5.5%이다.

한국의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교육, 조사분석, 그리고 회원 상호 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외의 관련 학계와 학문 교류에 힘쓰으로써 우리나라 언론과 학술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창립한 韓國言論學會에는 12개의 분과연구회가 구성되어 있다. 분과연구회는 신문방송학의 연구 영역을 세분하여 언론학자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데, 각 연구회의 연구 목적 및 관심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언론법제윤리연구회 : 언론 규범 및 커뮤니케이션 법규, 제도, 정책, 윤리, 사상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조사
-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회 : 국제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반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조사
- 언론사연구회 : 언론 발달의 통사적 연구를 비롯하여 인쇄매체, 전파매체, 대인커뮤니케이션 등 언론학에서 다루는 모든 분야에 걸친 역사 연구 및 발간 사업
- 이론 및 방법론 연구회 : 경험과학적 입장의 미시적 커뮤니케이션 이론 및 연구방법 연구
- 정치언론학연구회 : 정치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학술적 연구
- 방송연구회 : 방송 및 뉴미디어에 관한 학술적 연구
- 언론과 사회연구회 : 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거시적·비판적 접근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여 사회에 있어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의미에 대한 총체적 연구
- 지방언론연구회 :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언론의 발전과 그 실천 방안을 강구
- 광고연구회 : 광고 분야의 연구 활동 활성화
- 저널리즘연구회 : 저널리즘 분야 전반에 관

3) 李培根, "우리나라 신문방송학 교육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신문연구소학보」,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1987, p.73.

한 학술적 연구 조사

· PR연구회 : PR 및 이와 관계되는 이론 및 실제의 연구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PR 발전에 기여

· 커뮤니케이션정책연구회 : 커뮤니케이션 정책 결정과 관련된 과정, 체계,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연구하여 정책 수립에 공헌

한편, 차배근 교수는 대학원과정 전공 교과목의 유형별 분석에서는<sup>4)</sup> 기본 이론 및 방법론, 역사, 법제, 국제커뮤니케이션, 이론 각론, 미디어 각론으로 나누고 전국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의 294개 개설 교과목을 위의 6개 유목으로 분류한 결과, 기본 이론 및 방법론이 85개(28.9%)로 그 비중이 가장 높고 이론 각론은 64개(21.8%)로 이론의 비중이 학부에 비해 더욱 높다고 밝혔다. 또한 주로 실무 교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미디어각론이 53과목으로 18%를 차지하는 외에 거시 이론 위주인 국제커뮤니케이션이 40과목으로 13.6%, 역사가 28과목으로 9.5%, 법제가 24과목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신문방송학과 개설 과정을 볼 때 학부에 비해 대학원 과정이 너무 빨리 정착됨으로써 교과과정 운영이 理論教育에 치중하게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실무 내지 실습 과목의 비중은 낮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실습 기자재의 확충을 통해 실무·실습 교육을 활성화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어떻든 신문방송학과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신문방송학의 지식 체계가 전통 학문에 비해 일목요연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토의를 거쳐 한국 사회의 특수한 여건에 조응하는 교과목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分野別 主要 教科目 解説

### ① 커뮤니케이션 기본 이론 및 이론 각론

커뮤니케이션 기본 이론은 모든 대학이 전공 필수 과목(필수 과목이 없는 이화여대 제외)으

로 설강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 이 기본 이론을 매스커뮤니케이션론, 매스컴과 사회, 매스컴개론, 매스컴과 현대사회, 대인 커뮤니케이션, 조직커뮤니케이션 등으로 나누어 설강하기도 한다. 이 기본 이론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는 명칭으로 설강되는 과목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론, 학설 및 관계 문헌 소개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제공하고 전공 탐색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치중한다. 각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상이한 명칭으로 설강된 관련 과목의 내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ㄱ. 커뮤니케이션 이론 : 커뮤니케이션 개론,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커뮤니케이션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커뮤니케이션원론, 커뮤니케이션 원서강독, 커뮤니케이션특강, 비판커뮤니케이션 등

ㄴ. 이론 각론 : 인간커뮤니케이션론, 조직커뮤니케이션론, 정치커뮤니케이션, 설득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매체론, 커뮤니케이션메시지론, 커뮤니케이션수용자론, 커뮤니케이션효과론, 영상커뮤니케이션, 매스커뮤니케이션인류학, 비언어커뮤니케이션 등

ㄷ.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 매스커뮤니케이션원론, 매스커뮤니케이션개론, 매스컴과 사회, 매스컴과 현대사회, 매스컴원서강독, 신문방송학개론, 매스컴 통론, 대중문화론, 매스컴문화론, 매스컴과 사회발전, 매스컴이론, 매스컴특강 등

### ② 연구방법론

신문방송학의 연구 방법론은 경험 실증적 연구 방법, 규범 분석적 연구 방법, 구조 비판적 연구 방법 가운데 경험 실증적인 방법론이 주류를 이루며, 교과과정의 편제도 주로 행태분석적 접근에 치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이 과목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주우석대 등에서는 전공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 이 과목은 학교에 따라 과목 명칭을 달리하기도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연구방법, 매스컴연구방법론,

4) 「상계서」, pp. 76~79.

조사방법론, 커뮤니케이션학연구방법, 메스컴통계학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학교에 따라서 이 분야를 I과 II로 나누어 두 학기에 걸쳐 수강하게 하기도 하고, 조사방법론과 연구방법론을 별도 과목으로 편성하기도 한다.

### ③ 언론사

언론의 생성 및 미디어의 발달 과정과 그 역사적 배경, 역할 등을 사상사적·연대기적·지정학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 사회의 메체와 시대 상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이 분야의 설강 과목은 크게 나누어 한국언론사, 세계언론사, 언론사상사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대학은 한국 언론사를 필수 과목으로 부과하고 세계 언론사를 선택 과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언론사상사는 학교에 따라 설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ㄱ. 한국언론사: 대부분의 대학이 한국언론사를 필수 과목으로 정하고 있는데 교과 내용은 한국의 커뮤니케이션사 전체를 포괄하여 전근대 언론 현상까지 강의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한성순보 이후의 근대 언론을 중점적으로 교수하는 대학도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 언론사 교육은 연대기적·문헌 검토적 수준에 머물고 있고 사회 경제사적 연구 경향이 겨우 싹트는 단계이다. 그래서 한국언론사의 교과목 소개에서 대체로 한국 언론이 걸어 온 길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현재 한국 언론의 위상과 역할을 재검토한 후 바람직한 언론상을 제시하겠다는 포부에 비해 실제 교육은 문헌 정리 작업 내지 경험 실증적 연구의 보조에 만족하고 있는 듯하다.

ㄴ. 세계언론사: 세계언론사는 문헌을 중심으로 언론의 생성·발달을 연구하는데 주로 구미 언론의 발달 과정과 그 사회적 배경의 탐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미언론사, 세계언론사, 매체 발달사, 메스컴사, 커뮤니케이션사, 커뮤니케이션문화사, 커뮤니케이션발달사, 세계메스컴사, 언론사 등의 명칭으로 설강된 교과목에서 이 분야를 교육하며 대부분의 대학이 선택 과목으로 설강하고 있다.

ㄷ. 언론사상사: 언론 철학과 사상 및 언론학 연구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다루는 이 분야의 교과목은 일부 대학에서만 선택 과목으로 설강하고 있다.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의 상호 작용을 사

상사적 차원에서 탐구하는 것은 학문의 기본이요 연구의 출발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문방송학이 신흥 학문이라는 일반적 평판에 발맞추어 언론사상사는 우리나라 신문방송학과에서 별다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사실상 언론사상사 강의가 교수의 취향에 따라 비판커뮤니케이션론 분야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의 설강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과목의 명칭은 대학에 따라서 메스컴사상사, 커뮤니케이션사상사, 언론사상과 제도, 언론사상 등으로 작명되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학사라는 명칭으로 학문적 연구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사상 일반을 수렴하기도 한다.

### ④ 언론윤리법제

인간 사회의 바람직한 언론 활동을 통한 상호 이해와 공감의 요구를 규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언론윤리법제론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필수 과목으로 설강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차별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전문 연구자의 부족으로 언론윤리와 언론법제론이 한 과목으로 편제되어 통합 강의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언론윤리보다 언론법제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언론에 대한 법적 통제 현상을 위주로 교육하고 있다. 언론윤리법제론은 인간의 사회적 언론 활동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와 정치적 의미까지도 탐구해야 하므로 언론철학이나 언론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언론윤리론 및 메스커뮤니케이션 활동과 관계되는 법이론과 논리 체계와 그 판례 등을 비교·검토하는 언론법제론으로 나누어져야 하겠지만, 대개의 대학에서는 언론윤리법제론에서 언론규범이론을 전반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 과목의 명칭은 언론법, 언론법제윤리론, 언론윤리법규, 메스컴윤리법제, 메스컴법제론, 메스컴윤리, 메스컴윤리법규, 신문방송법제 등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언론제도론, 언론통제론, 메스컴통제론도 이 과목의 유사 과목으로 볼 수 있다.

### ⑤ 국제커뮤니케이션

전공 필수 과목의 비중이 큰 대학에서 국제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론은 대체로 전공 필수 과목에 포함 되어 있고, 그 비중이 낮은 대학에서는 전공 선택 과목으로도 반드시 설강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정보 유통, 세계관이 다른 사회 체제 간의 정보 교류를 거시적인 수준에서 연구·분석하는 입장 및 국가와 문화 체계가 다른 사회 체제 속에 살고 있는 개인과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증진 방안을 미시적 차원에서 연구·분석하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전자에서는 국가간 커뮤니케이션의 불균형 및 문화적 예측 상태를 타개하는 정치경제학적 시각을 갖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웃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심리적 접근 방법을 취한다.

국제커뮤니케이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분야로는 국가간 커뮤니케이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을 들 수 있겠으나, 개설 교과목의 명칭은 국제커뮤니케이션론 외에도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비교신문학, 신생국 커뮤니케이션, 공산권 커뮤니케이션, 제3세계 커뮤니케이션제도 연구 등을 들 수 있고,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 시각의 특징 가운데 일부분인 개혁커뮤니케이션, 발전커뮤니케이션 등의 교과목도 이 과목의 유사 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⑥ 신문방송 학론

신문방송 학론은 이론과 실무, 실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신문방송의 기본 이론을 필수 과목으로 정하고 있고, 실무론이나 실습은 선택 과목에 배치하고 있다.

신문론은 신문원론, 신문학개론, 신문론 등의 명칭으로 신문 현상에 관련된 일반 이론을 교육한다. 신문의 기능, 신문의 자유와 책임, 신문사의 조직과 경영, 뉴스의 취재·편집, 기사화 과정 및 뉴스와 해설, 논평 등의 신문 내용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개관하고 신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폭 넓은 관점들을 소개하는 것이 신문 관계 기초 이론의 몫이다.

신문 학론 중에서 실무와 관련된 교과목들로 기사작성론, 취재보도론, 보도사진론, 신문경영

론, 신문편집제작론, 언론문장론, 메스컴문장론, 신문보도편집론, 신문편집, 기사연구, 사진저널리즘, 사진보도, 메스컴문장론 등이 설강되어 있고, 신문편집제작실습, 메스컴제작실습 등 신문 관련 실습 강좌를 합하면 대체로 신문방송학과 설강 교과목의 20%가 이 분야라고 한다.<sup>5)</sup>

방송론의 기초 이론을 제공하는 교과목은 방송론, 방송원론, 방송학원론, 방송학개론 등의 명칭으로 신문론처럼 대부분의 대학에서 필수 과목에 배치하고 있는 한편, 실습 과목들은 선택 과목에 배치하고 있다. 방송론에서는 전파미디어, 일반에 대한 기초적 이론과 기본적인 실무 이론을 교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한국 방송의 역사적 전개 및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 방송의 제도적 성격과 그 편성의 특징 및 윤리 규제까지를 다루는 한국방송론을 설강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방송 학론과 관련되는 교과목들로는 방송보도론, 방송편성론, 방송제작론, 방송문장론, 방송편성제작론 등이 설강되어 있고 방송편성제작실습강좌가 편제된 대학도 있다. 방송 관련 이론 및 실무 과목의 비율은 전체 교과과정의 약 11% 정도이다.

#### ⑦ 광고·PR학론, 여론선전론

대부분의 대학에는 설득커뮤니케이션의 실무 교과목인 여론과 선전, 광고론, PR론이 별도의 교과목들로 편성되어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광고제작론, PR제작론, 광고·PR제작론, 사보제작론 등을 설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 과목은 다수의 대학에서 선택 과목으로 설강되는 추세이다. 차배근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1985년 기준으로 광고·PR론의 교과과정 점유율은 전체의 8.7%라고 하는데 이중 전공 필수 과목에 배정된 경우는 24%에 불과하고 76%의 대학에서는 전공 선택 과목으로 설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과 선전 교과목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선택 과목에 배정하고 있었다.<sup>6)</sup>

한편, 1989년에는 한양대에 광고홍보학과가 신설되고, 광주대에 출판광고학과가 신설되었으

5) 「상계서」, pp.76~79.

6) 「상계서」, pp.75~76.

며 중앙대에서는 신문방송학과에서 광고홍보학과가 분리되어 復科(중앙대 광고홍보학과는 1974년에 개설되었으나, 제5공화국 때 신문방송학과에 통합되었음)됨으로써 신문방송학과와는 학과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설득커뮤니케이션 학문 분야 실무 교과목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일조가 될 것이다.

#### ⑧ 기타의 대중매체 학문

신문·방송이나 설득커뮤니케이션 학문 이외의 대중매체 학문으로는 출판·잡지론, 영화·연극론, 뉴미디어론 등이 있는데 많은 대학이 이 과목들을 선택 과목으로 정하고 고급 학년에 설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약 10여 개의 대학에서는 출판·잡지론, 연극·영화론 과목들을 신문방송학과 교과목으로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영화·연극론의 설강 비율은 출판·잡지론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판·잡지론 중에서 출판론을 분리시킨 대학도 있고 영화·연극론 가운데 영상 언어의 구조적 특성과 전달 특성을 사진, 텔레비전, 영화 등의 매체별로 분리하지 않고 종합하여 연구하는 영상론 또는 영상커뮤니케이션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는 情報化 社會로의 변천을 기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뉴미디어론이 현대미디어론, 신매체론, 새미디어론, 뉴커뮤니케이션론 등의 이름으로 개설되기 시작하고 있는 점이다. 뉴미디어론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에 따라 기존의 매체 체계를 혁명적으로 뒤바꾸어 놓을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신문방송학을 첨단 과학 대열에 서게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문방송학계 내부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전문적인 연구 인력의 부족으로 컴퓨터와 인공 위성까지 동원되는 새 미디어연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나 인기는 아직 충분히 고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모든 대학에 이 과목이 설강된 것도 아니다.

#### ⑨ 각 대학의 독특한 설강 과목

각 지방 대학에는 지역 커뮤니케이션론이 개설되어 있다. 학교에 따라서 지역 미디어론, 지역 매체론 등으로 작명된 이 과목은 지역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신문·방송·통신 등 미디어별로 살펴 보고 지역 사회 발전과 커뮤니케이션과의 관련성을 정립시키는 방안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 개명대에서는 지방신문론을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고 광주대는 언론과 지역 사회를 개설하고 있는데, 설강 목적이나 과목 개요는 지역 커뮤니케이션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서강대와 동아대는 매체경제학을 선택 과목으로 설강하고 있고 고려대는 거시커뮤니케이션과 미시커뮤니케이션을 설강하고 있어 이채롭다. 선택 과목의 설강 폭이 넓은 서강대의 선택 과목에는 현대 매스미디어 연구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철학적·신학적·문학적·사회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고찰하려는 '미디어와 인간', 스피치의 본질·수사법 등을 이해하는 것을 주로 하고 실제 연습을 병행하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TV 스튜디오에서의 프로그램 기획 및 연출과 비평을 익히는 'TV 제작', 영상 미디어의 미학적 특성—빛과 색의 기능과 구성, 면과 공간의 깊이와 구조, 음향 시간, 그리고 동작 구조 등—을 연구하는 '매체미학', 희곡 및 소설의 창작법을 강의·토론하고 학생들이 직접 단막극 또는 단편 소설을 쓰도록 지도하는 '창작법', 한국 잡지저널리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다루는 '한국잡지사' 외에도 '한국연극사', '연극제작', '영화제작' 등의 교과목이 있어 주목을 끈다.

고려대는 학부 과정에 거시·미시 커뮤니케이션 외에도 관념론적 언론 연구 방법, 언론경영 정책이 개설되어 있고 대학원과정에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제3세계 정보질서론 등이 설강되어 있다. 성균관대에는 대중정치론이 설강되어 국민 여론에 의해 운영·발전되는 자유민주적 정치 사회에 있어서 대중이 정치에 미치게 되는 영향력들을 커뮤니케이션적 현실에서 살펴 보고 올바른 여론의 반응을 위한 안목을 넓혀 준다.<sup>7)</sup>

7) 『성균관대학교 요람』, 1988, p.338.

이화여대에는 시각 디자인의 요소인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레이션과 색채 등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는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방송 매체의 교육적 수용 측면을 역사적·이론적으로 접근·고찰하는 '교육방송론' 등이 개설되어 있다. 중앙대에는 공공 어나운스먼트의 발생, 발화, 억양 등의 이론과 기초 훈련, 뉴스 캐스팅, 뉴스 앵커리우, 커머셜멘트 등 공중 앞에서의 구화 등을 실기 중심으로 교수하는 '어나운싱', 전문지, 학교신문, 회사의 사보 및 홍보 간행물의 조직·기능과 운영 및 편집·제작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특수신문론', 기업 내의 커뮤니케이션 기본 원리와 방법을 탐구하는 '경영커뮤니케이션' 등을 개설하고 있다.

한국외대는 피쳐영어, 논설영어, 전문 분야 보도연습 등을 설강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양대도 영어기사작성법, 영어기사분석, 고급신문영어 등의 교과목을 설강하여 기사 작성 훈련을 행함으로써 언론 실무와의 연계성을 거양하고 있다. 특히 한양대는 언론과 관련된 영어 교과목을 다수 개설하여 학생들이 언론 실무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각 대학이 신문방송학의 공통 분야를 전공 필수 과목으로 설강하고 전공 선택에서는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교과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각 대학의 교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신문방송학의 폭 넓은 연구 영역 가운데 특수한 일 영역에서 상당한 연구 실적을 쌓고 있으므로 해당 교수의 학문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서도 소속 교수의 전공 분야를 위주로 한 선택 과목을 다수 설강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이론적 천착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교수들의 연구 의욕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대단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이다.

#### 4. 教科課程의 改善 展望

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신문방송학과 재학생

의 학과 선택 동기를 본 때 언론계에 진출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지원하는 경우는 31%를 넘고, 학과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척도상 3.4였다. 한편, 신문방송학의 학문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는 5점 척도상 3.9로 비교적 높았고 다른 사회과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학문적 지위는 4.1로 나타났으며 신문방송학의 학문적 장래에 대한 기대감도 4.1이었다. 한편, 대학에서의 신문방송학 교육의 유용성은 3.4인 반면, 졸업 후 취업상의 전공 有利性은 2.3으로 크게 낮아져\* 자신들의 대학교육과 직업 생활 간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은 신문방송 현업과 일정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듯한데 그것은 오히려 신문방송학이 깨어있는 독자들을 만드는 데 일역을 담당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언론계 진출을 목표로 신문방송학에 진학한 약 1/3 정도의 학생들은 실무 교육의 부족과 언론계 신입직원 충원에 있어서의 특혜 배제 등에 불만을 표시하겠지만, 언론의 자유를 국민 모두에게 폭넓게 보장하려면 누구나 평등하게 언론매체에 접근(언론인이 되는 것을 포함하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경우에 신문방송학과 졸업생에 대한 특별 채용보다 보편주의적 방식의 언론인 공개 경쟁 채용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신문방송학 교육은 기능적 업무를 미리 터득한 유능한 언론인의 양성은 물론 양식있는 公衆의 지성 능력 개발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거양하여 필자는 신문방송학과 교과과정 개선의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전공 필수 과목의 수를 줄이고 전공 선택 과목의 개설 강화 수를 늘리되, 각 대학의 실정과 교수 능력을 감안하여 각 대학별로 전공 선택 과목의 特性化 내지 差別化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공 선택 과목은 언론 현업 진출자를 위한 교과, 사회 체제 비판과 진보적 학문 성향

8) 차태근, 「전제서」, pp.96~97.

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교과, 양식있는 독자 내지 수용자 공중으로서의 언론 운동 역량을 제고하는 교과를 계열화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언론 현업 진출자를 위해서는 취업 시험 준비 또는 취업 후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교과목을 중점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신문방송학과 졸업생이 타과 졸업생에 비해 현업 세계 속에서 좀 더 훈련받은 전문 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초급 학년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취향을 더욱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양적 성격의 기본 과목이나 인접 과목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신문방송학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회학·심리학 및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정치학·경제학·문화인류학·역사학·언어학은 물론 학문 중의 학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철학적 소양도 개발할 수 있도록 1학년과 2학년 교과목을 크게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학부 고급 학년에서는 좀 더 심도 깊은 新聞放送學 研究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학생들

의 희망과 기호를 고려하여 교과목을 편성함으로써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자원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신문 현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광고제작론, 방송편성제작 등의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지 않아도 되듯이 방송 제작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 고급 이론이나 연구방법론, 사회통계학을 수강하지 않아도 되게끔 교과목을 조정하고 교과목별 연결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小考를 회생양으로 삼더라도 우리나라 신문방송학이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위주의 미시적 연구 수준이나 극적없는 체제 비판적 연구 성향으로부터 자유를 되찾아 거시적이고 건설적인 차원에서 한층 자유롭고도 평등한 민족·민주 언론을 만들어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 압력과 의도적 조작에 시달리는 많은 민중들의 삶을 진정으로 해방시키는 데 기여하는 人間的 學問이 되기 위해 학자나 학생 모두가 교과과정 개선에 관심을 갖고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